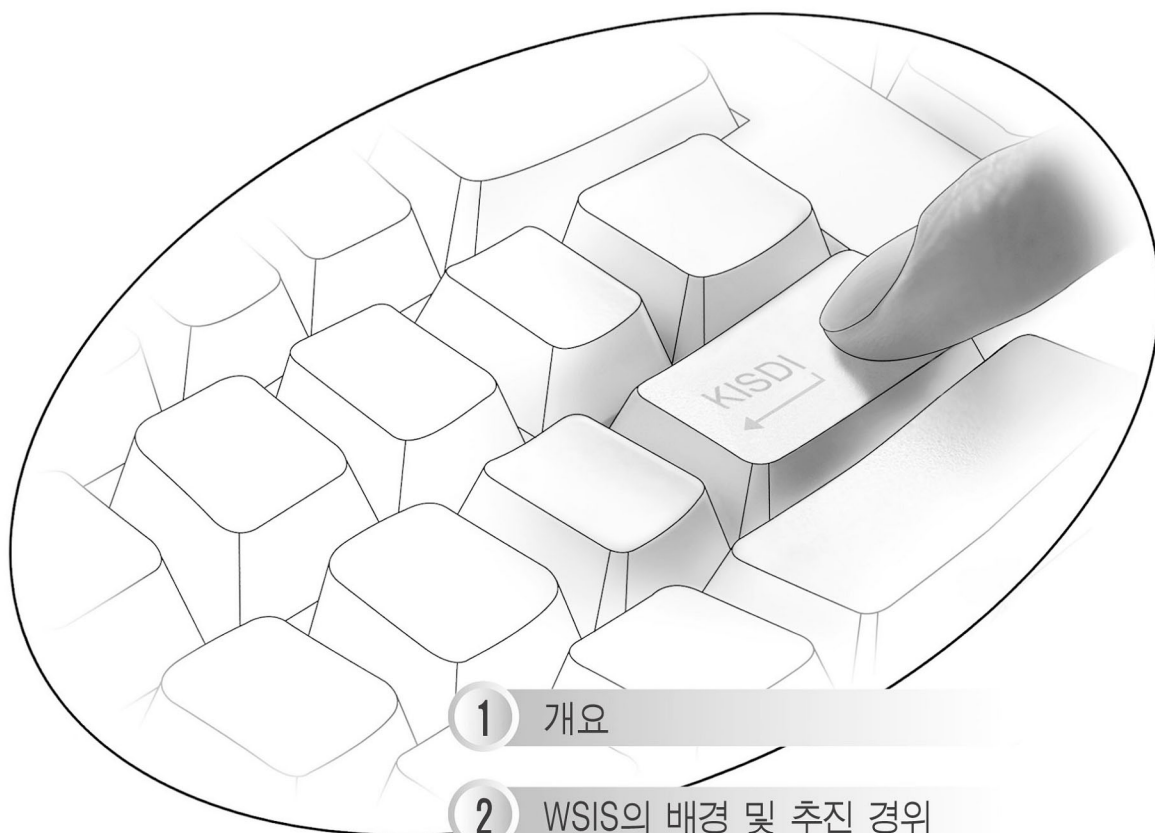


KISDI 이슈 리포트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2003. 8. 4

서보현, 김태은, 백지원, 이영미



- 1 개요
- 2 WSIS의 배경 및 추진 경위
- 3 WSIS의 주요 이슈 및 당사자 입장
- 4 평가 및 전망



서보현

- seobh@kisdi.re.kr, 02-570-4210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 미국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캐나다 McGill Univ. Faculty of Law visiting research fellow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PII 협력센터 소장)
- 현 한국첨단망협회(ANF) 정책위원장
- 저서: 「전파자원 이용·관리 발전방안 연구」
「국제기구의 주요 정보통신 정책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등

김태은

- lmy94@kisdi.re.kr
-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단 책임연구위원
- 저서: 「세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등

백지원

- jwpaik@kisdi.re.kr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단 주임연구위원
- 저서: 「정보통신 협력을 위한 APEC 주요 회원체 통신시장 정책분석」 등

이영미

- ymlee@kisdi.re.kr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단 연구위원
- 저서: 「2003 초고속정보통신 국제협력사업 결과보고서」 등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 약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의 발전은 세계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모든 인류가 이러한 변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현재, UN과 ITU는 공동으로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2003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였다.

WSIS는 선·후진국을 망라한 전세계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의지를 천명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NGO) 등 광범위한 참가자들을 통해 정보사회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세계적 파급효과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WSIS 회의 논의는 제1차 WSIS 준비회의(PrepCom-1), 제2차 준비회의(PrepCom-2)와 회기간 회합(Intersessional Meeting)을 통해 WSIS 원칙 선언문(Declaration of Principles)과 행동계획(안)(Action Plan)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증진에 대한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의 역할, 인간능력 개발, 보안, 정보사회 실현 가능 환경, 모두에게 발전 중심적인 ICT 애플리케이션 장려,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의 다양성, 국가 고유의 콘텐츠와 미디어 개발, 인간적 측면에서 정보사회 구축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WSIS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WSIS 논의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여러 분야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참여 동기와 목표에 대한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 간, 기업과 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도 준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대부분의 정보화 선진국들은 WSIS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미디어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물리적 기반 확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WSIS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WSIS 논의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편차와 유사하며,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한다. WSIS 의제는 정보 및 IT의 민영화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안들도 NGO와 민간기업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SIS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WSIS는 단계별·지역별 준비절차와 2단계의 정상회의라는 구조를 통하여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정상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추측된다.

WSIS는 정보화를 주제로 하여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이며,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IT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입지와 IT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1. 개요

-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의 발전은 세계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모든 인류가 이러한 변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UN과 ITU는 공동으로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2003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개최토록 함
- WSIS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적으로 공통되고 균형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식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 및 비전을 다루게 될 것임
 - 정보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 정보사회의 신규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 등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
- WSIS는 2단계에 걸쳐 개최되며 정보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원칙선언문(Declaration of Principles)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할 계획임
 - 1단계(2003, 제네바)는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
 - 2단계(2005, 튀니지)는 특히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계획을 채택
- WSIS는 선·후진국을 망라한 전세계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의지를 천명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NGO) 등 광범위한 참가자들을 통해 정보사회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세계적 파급효과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 WSIS는 정보통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모범적인 발전사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IT 강국 입지 및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2. WSIS 배경 및 추진 경위

WSIS 배경

- WSIS는 UN의 지원하에 ITU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UN 차원의 정상회의로, 그 개최 근거를 아래 UN 총회의 결의에 두고 있음
- ITU는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에서 결의 73을 채택하여 WSIS의 개최와 관련한 ITU의 기여를 UN에 상정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결의함(1998. 10)
- 2001년 UN 총회에서 UN 사무총장의 후원하에 관련된 UN 기관 및 주최국과의 협력하에 ITU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하게 될 WSIS를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함(2001. 12, UN Res. 56/183)
- 2001 ITU 이사회는 기타 UN 기관과의 협의와 타당성 조사의 준비과정을 거쳐 WSIS를 2단계로 개최하는 추진체계 및 준비일정을 승인함(2001, Doc. 49와 UN Res. 1179)
- UN은 UNGA56/183을 재확인하는 결의 UNGA 57/238을 채택함(20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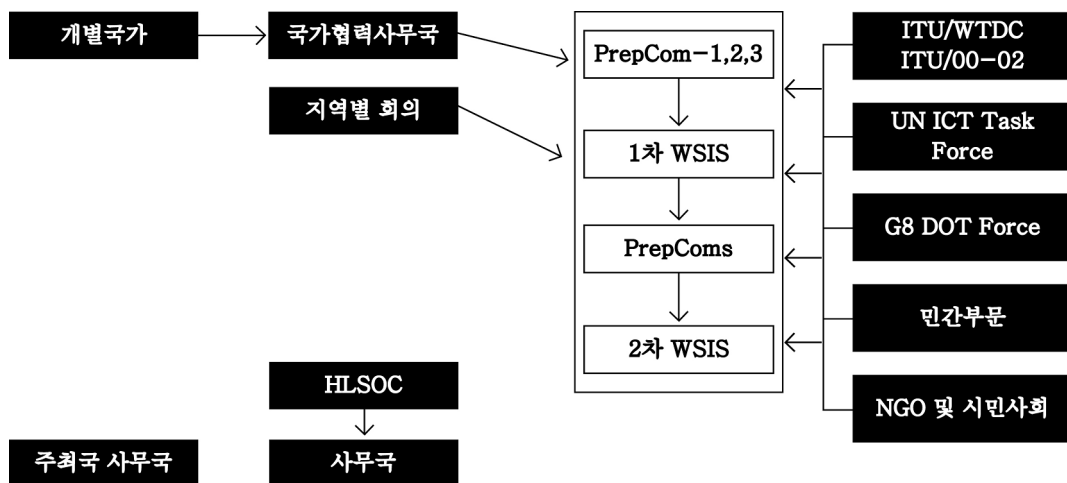
WSIS 추진체계

- WSIS의 개최와 관련하여 UN 사무총장과 행정조정위원회(Administrative Coordination Committee : ACC) (현재는 Chief Executive Board로 개칭됨)의 후원하에 설립된 고위급 정상회담 조직위원회(High Level Summit Organizing Committee : HLSOC)가 의제작성 및 결과제안, 준비의 감독을 담당함
 - WSIS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의 설립, 사무국 보고서의 검토, ACC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에 보고, 준비과정에 다른 국가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HLSCO의 의장은 ITU 사무총장이 담당하며 ITU를 포함한 UN 전문기관의 대표, UN 사무총장실의 대표, UNITAR 및 UN 지역경제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됨



WSIS 준비과정

- 제1차 준비회의(PrepCom-1)
 - 2002. 7. 1~5일간 제네바에서 개최(142개국 정부대표를 포함, 민간부문, NGO 등 총 969명이 참가)
 -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사절차 규정(Rules of Procedure)과 WSIS 준비작업이 지침이 되는 원칙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됨
- 지역별 준비회의(Regional Preparatory Meeting) 개최

아프리카 지역회의	2002. 5. 25~30	말리 바마코
비쉬켄 · 모스크바 소지역회의	2002. 9/10	키르기스탄/러시아
범유럽 지역회의	2002. 11. 7~9	루마니아 부카레스크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2003. 1. 13~15	일본 도쿄
남아메리카/카리브 지역회의	2003. 1. 29~31	도미니카 바바로
서아시아 준비회의	2003. 2. 4~5	레바논 베이루트
아랍 지역 준비회의	2003. 6. 16~18	이집트 카이로

o 제2차 준비회의(PrepCom-2)

- 2003 2. 17~28일간 개최(146개국 정부대표를 포함한 총 1,586명이 참가)
- 제2 소위원회 내에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WSIS 선언문 및 행동계획의 기본 내용을 논의하였고, 전체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 수립을 위한 회원국들의 추가 의견을 5월 말까지 받기로 함
- 회기간 회합(Intersessional meeting)의 개최 결정(프랑스 파리 UNESCO) 및 후속 준비과정 일정을 확정함

o Intersessional Meeting

- 2003. 7. 15~18일간 파리 UNESCO 본부에서 개최함
-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 작성 및 의견을 검토함
-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 작성을 포함한 WSIS 준비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함
- 선언문 초안은 9월에 개최되는 PrepCom-3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보다 간결하고 체계적인 선언문을 마련하기로 함
- 행동계획 초안과 관련하여서는 PrepCom 의장과 ITU 사무총장 및 지역 코디네이터들을 중심으로 2003년 8월 22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o 현재 유럽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약 25개국 정상외의 참여가 확인되고 있음

며, 주요국의 참가자들도 곧 확정될 예정임

-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루마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브라질, 코스타리카, 페루, 쿠바, 남아공,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 말리,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재원조달 현황

- o WSIS의 재원은 주최국인 스위스와 튀니지가 약속하고 있는 지원에 덧붙여, 자발적인 현물 및 현금 기여를 통하여 조달됨.
 - 주최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2단계의 정상회담 개최비용을 제외하고도 1억 1800백만 CHF(스위스프랑)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WSIS 준비 및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함
- o ITU의 정규예산 중에서 WSIS 비용을 할당하고, TELECOM 전시자금 기금으로부터 500만 CHF 한도 내에서 WSIS 비용을 빌려 주는 것을 승인함
- o 현물 기부
 - WSIS 집행사무국에 대한 인적 지원으로 ITU 외에 스위스(3), 스페인(1), 일본(2), 루마니아(1), 캐나다(1), 한국(1), UNDP(1), UNESCO(1), UNITAR(1), 제네바(5), KDDI(1) 등을 지원하고 있음
 - ITU는 사무실을 지원하고 스위스가 집기 등을 지원함
- o 현금기부
 - 2003년 5월 31일 현재 총 3,303,173CHF이 기부되었으며 2,203,500CHF의 기부가 약정됨

(단위 : CHF)

국가	일본		796,835	
	말타		3,512	
	포르투갈		30,000	
	버키나 파소		15,000	
	핀란드		245,565	
	스페인		145,200	
	스웨덴		317,660	
	캐나다		916,288	
	벨기에		52,500	약정액
	이탈리아		375,000	약정액
	스위스	OFCOM/BAKOM		311,873
SADC		500,000	50,000은 약정액	
국제기구	EC		432,000	약정액
	ATU		750	
	WMO		30,000	
	UPU		15,000	
	UNFCU		1,390	
	ITU		1,194,000	약정액
기업	NTT DoCoMo		124,100	
총액			5,506,673	

- 상기 재원조달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여는 거의 없으며, 국제기구는 ITU와 EC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WSIS에 관한 ITU의 기여

- ITU는 정보사회 관련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정보통신 부문 최고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방송, 멀티미디어의 융

합 등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른 국제기구 및 주요 논의의 장에서 정보통신이 핵심적인 의제가 되면서 오히려 ITU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음

- ITU는 UN 결의를 통하여 WSIS의 개최와 관련된 주도적인 역할을 공인받아 총괄적 준비 및 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정보사회와 관련된 세계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ITU는 2001 이사회 결의 1174를 채택하여 ITU 2002~2003 정규예산 중 131,000CHF를 할당하였으며, 이 할당액은 모두 소진됨
 - PP-02 결의 6에서 2003~2007 재무계획에 1,194,000CHF을 할당함
 - 2001 이사회 결의 509를 채택하여 WSIS가 전시작업 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주는 Loan facilitating mechanism을 승인함

- ITU는 주최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총괄적인 지원 외에도 재정적·내용적인 면에서 WSIS 개최에 기여하고 있음(내용적인 면은 '3. 다) 주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다룸)

3. WSIS 주요 이슈 및 당사자 입장

가) 개요

- 2001년 UN 총의 결의안을 통해 WSIS의 목적을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공통된 비전을 개발하고, 정보사회를 이해하며,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채택을 함께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 따라서, WSIS의 참여 주체는 UN 산하기구,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로 구성됨
- 이 WSIS 논의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여러 분야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참여 동기와 목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 간, 기업과 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도 준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
- WSIS 논의를 통하여 정보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의 발전과 글로벌 전략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사회의 혜택을 전달해주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임
 - 각국 정부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정보화 수준을 막론하고 정보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
- 각국 정부는 WSIS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미디어와 네트워크 구축 같은 물리적 기반 확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2002년 7월 1~5일 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WSIS 준비회의(PrepCom-1)와 전체회의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회의 컨텐츠와 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 여기서 나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장은 ‘WSIS 준비작업 및 WSIS의 원칙’(Principles Guiding the Preparatory Work and the WSIS)

과 ‘WSIS 논의 주제 제안’(Proposed Themes for the WSIS)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WSIS에서 다루게 될 기초적인 원칙과 주제만 논의되었음. 또한 9월 16~18일간 열린 비공식 회의(Informal Meeting on Content and Themes)에서는 PrepCom-1에서 제시된 WSIS 원칙과 주제가 더욱 구체화되었음. 이것을 바탕으로 2003년 2월 17~28일간 개최된 PrepCom-2에서는 WSIS 선언문과 행동계획 문서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음

- 200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준비회의와 한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최근에 개최된 WSIS 임시회의(2003년 7월 15~18일)에서 다룬 WSIS 원칙 선언문과 행동계획(안)에서 다루고 있는 WSIS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 인프라: 자금 조달 및 투자, 적정성, 개발 및 지속 가능성
 -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
 -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증진에 있어서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의 역할
 - 인간능력 개발
 - 보안
 - 정보사회 실현 가능 환경
 - 모두에게 발전 중심적인 ICT 애플리케이션 장려
 -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의 다양성, 국가 고유의 콘텐츠와 미디어 개발
 - 인간적 측면에서 정보사회 구축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나) 주요 이슈

1) 정보통신 인프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자금 조달 및 투자, 적정성, 개발 및 지속 가능성

- 정보통신 기술(ICT)은 모든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 및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프라와의 연계

성(connectivity)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커뮤니티에 공공 정보접근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저렴한 가격의 장비 및 접속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격차 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 각 나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정보격차는 교육, 보건, 정보접근과 같이 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낳게 하는 원인이자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결과임
-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서비스를 누구나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임
 - * 모든 사람들이 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새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
 - * 학교, 도서관, 우체국과 같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연결망 개발
 - * 외딴 곳이나 농촌 지역과 같은 환경에 맞는 정보통신 기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 연구(예: 모든 사람들이 정보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목적 커뮤니티 정보접근센터 설립)
 - * 기술, 기존의 인프라, 시장전개, 사용자 요구의 변화로부터 생기는 발전과 기회를 반영하는 보편적 접근·서비스의 개념을 수시로 재정립
- 광대역(Broadband): 각 나라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임
- 저렴한 비용의 장비(Low cost equipment):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데 저렴한 가격의 관련 장비 생산과 제공이 필수임

- 저렴한 비용의 연결망(Low cost connectivity): 보편적 접근 정책은 될 수 있는 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미개발 지역에 최적의 연결망을 제공하도록 할 것임
- 융합(Convergence):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액세스 대체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기술융합이 이루어져야 함
- 기타: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s), 지역 인프라(Regional infrastructure),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2)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 지식에 대한 접근: 개인 및 기관은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접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보사회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 발전을 위한 글로벌 지식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것은 교육·과학·경제·사회·정치·문화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진작될 수 있음
- 공공 도메인 정보 접근(Access to public domain information): 다양하고 많은 공공 도메인은 정보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공 도메인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함
- 개방형 표준과 소스(Open standards and opensource software): 개방된, 융통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국제 표준이 개발되고 장려되어 모든 사람들이 기술과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보다 널리 보급되어 선택의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에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용어나 다

른 언어 리소스 분야에 대한 표준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

-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s): 정보사회 구축에서 보다 균형 있는 정보의 흐름을 추구해야 함. 인터넷상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인터넷 계약은 재협상되어야 함

3)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의 역할

- o 사회 각 그룹 간 협력: ICT 관련 이슈를 다루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 모든 그룹이 지방, 국가, 지역 및 범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경제사회 모든 분야 — 특히 개발도상국 — 정보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바로잡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함
 - 기업은 ICT 개발 및 투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장려해야 함
 -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ICT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데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해야 함
 - ICT 제조 능력: 정부가 국가와 지역 ICT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데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4) 인간 능력 개발

- o 모든 사람들이 정보사회와 지식경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지식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 및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 구축과 ICT 기술 훈련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특히 중요함
- o 정보사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ICT 기술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지리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정규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learning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교육분야의 ICT 활용: 교육분야의 ICT 활용으로 인해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ICT 활용능력 배양: ICT 활용능력과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정보사회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초등교육부터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룹의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ICT 전문가 양성: 자격을 갖춘 숙련된 ICT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초 및 고급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5) 보안

o 보안 문제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정보기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임. 전자거래의 증가에 따라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ICT 인프라를 보장하는 것이 정보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ICT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방지, 탐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나 법 집행과 더불어 범세계적 사이버 보안 문화가 발전될 필요가 있음
- 이해 당사자의 역할: 정부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

하고, 정보 리소스와 기술이 범죄 및 테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데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ICT 사용과 정보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함. 지역사회와 각 가정도 이러한 부분에 협력을 해야 함

- 국제협력: 민간 및 군 분야에서 ICT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인프라와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지역적·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6) 정보사회 실현이 가능한 환경

- o ICT 데이터 사용 및 오남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등장으로 전세계, 지역, 국가 차원의 적절한 법적·규제적·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안, 지적 재산권, 인터넷 주소 및 도메인 이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고려되어야 함
- Good governance와 시장 환경: 정보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법적·규제적·정책적 환경 — 기술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켜 민간부문으로부터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 —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통신 인프라 가용성과 적정 수준 가격의 통신 서비스 및 ICT 장비는 모든 사람의 ICT 접근 및 활용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임
- 표준화: 표준화는 정보사회 실현에 중요한 주춧돌임. 범세계, 지역, 하위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 개발 및 적용, 노하우 전수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장려해야 함. 개방형 표준 개발 및 사용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중요함. 이와 관련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웨어 사용 증가로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다양한 선택의 폭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전파자원의 관리: 전파자원(radio frequency)은 공익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원칙의 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또한 국가법과 규정 및 관련된 국제적 합의사항도 준수해야 함
- 소비자 보호: 사생활 침해, 불법·유해물 및 소수민족 보호와 같은 문제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정보 사회 구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보장이 필수적임
-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명의 및 주소 관리: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자 간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요구도 고려되어야 함. 루트서버, 도메인 네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할당에 관한 조정은 적합한 국제기구 또는 정부 간 기구 (IGO)에서 이루어져야 함. 국가번호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domain names : ccTLDs)에 대한 정책 결정은 각 국가의 고유 권한임
-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IPR)과 공공의 이익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 지적 재산권이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의 기술 혁신과 및 관련 부문의 무역·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과 정보 사용자의 권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음. 또한 국제기구에서 지적 재산권 이슈에 대해 도출된 합의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공공 지식정보 도메인 개발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개인 지적 재산권 남용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함

7) 모두에게 발전 중심적인 ICT 애플리케이션 장려

- ICT는 다양한 정보,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발전 중심적인 ICT 애플리케이션에는 e-government, e-business, e-learning, e-health 등이 있음
 - e-government : 정부 행정에 ICT 툴을 활용하여 정부 내 모든 조직, 특히 지방정부 내에서 시민이나 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와 같은 행정업무의 투명성, 책무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 e-business : 정부는 정보사회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부문 투자, 신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증진시켜야 함
 - * ICT는 장소에 상관 없이 소비자들의 공급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e-learning : 교육과 지식에 대한 접근은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개인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업의 효율성 제고의 수단이기도 함
 - e-health : 건강검진 정보를 접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특히 농촌이나 외진 지역 같은 곳에서 적절한 의료 시설이나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음. 자원 활용, 환자들의 만족도, 개별상담, 공공 의료 시스템, 민간 시설 및 학교 시설의 연계를 개선, 강화하는 데 ICT가 보건분야의 여러 부문에 적용·통합되어야 함
 - * ICT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하며, 시

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건강검진 과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 * 공동 정보시스템(common information system)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하여 심각한 질병의 유포 방지, 대응, 관찰 및 통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 재해나 비상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e-health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8)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의 다양성, 국가 고유의 콘텐츠와 미디어 개발

o ICT 포맷에어 다국어 콘텐츠 개발이 장려되어 지방 및 나라의 문화 다양성, 언어, 유산, 고유 지식 및 전통이 보존되어야 함

-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문화적 정체성, 언어의 다양성, 다언어주의와 지방언어는 각 나라 및 국제적 용도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동력임
- 콘텐츠: 자국 콘텐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자국 콘텐츠의 생성, 프로세싱, 확산 및 보존은 지적 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요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음
- 미디어: ICT와 미디어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국가 간 자국 콘텐츠의 교류를 확대함

9) 인간적 측면에서 정보사회 구축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

o 사이버 공간은 진리, 정의, 연대, 관용, 인간 존엄성, 책임 및 의무 공유와 같은 보편타당한 윤리적 가치가 통용되는 곳이어야 함. 정보사회 모든 구성원은 공동선을 추구하고 ICT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다) 주요 당사자 입장

1) 주요 국가의 입장

미국

- WSIS 논의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금년 7월 파리 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WSIS 임시준비회의에 제출한 WSIS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은 정보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민간부문·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미국의 의제는 인프라 개발, 네트워크 보안 확립, 인간능력 개발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미국은 WSIS를 통하여 각국 지도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WSIS는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국가 내에서, 민영화, 경쟁, 민주화, 지적 소유권 보호와 강화를 권장하는 합당한 법률적·규범적·정치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민간기업의 역할 강화는 WSIS 준비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이자 개발도상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개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임
 - 민간부문은 세계 통신과 정보의 네트워크 및 설비시설의 개발에서 개인 투자의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국가 주도의 통신산업을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자유화함으로써 통신산업의 발달과 함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함(이에 대하여 일부 개발도상국은 민간기업 주도하는 통신 서비스는 농촌 지역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지체할

것이며,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는 입장임)

- 미국은 IP주소 할당, 인터넷 도메인 네임 및 루트서버 시스템의 관리 등 인터넷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체제유지의 입장임
 - 반면 EU 및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현재 ICANN은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봄
 - 따라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가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별도의 국제기구 또는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지적 재산권에 관해 미국은 기존 법 체계에 의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사용자 권리와 균형을 주장함

- 현재 미국 정부의 중요한 현안으로 정보망 감시, 검열,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와 연관해서 미국 정부는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전쟁 선포를 WSIS 공식 의제로 거론할 것을 원하고 있음
 - 정보망 감시와 사생활 침해 관련 이슈는 정보화사회의 군사화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고, 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정보의 군사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단지 미국 내로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 확대로 전세계의 정보망 감시가 가능해졌기에 문제의 범위가 확대됨 (하지만 NGO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시민 단체 역시 사생활 보호와 같은 이슈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계층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삼가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임

-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면 정보 유출이 불가능해지고, 개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없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할 동기가 사라지게 됨
- 따라서, 최근에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사생활 보호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유럽연합(EU)

- o EU는 정보사회의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UN 인권선언 19조에 포함된 인권, 의사 표시의 자유, 기본권 존중 그리고 정부의 간섭 없이 미디어 또는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한 정보에 대한 무제한 접근의 권리 보장
 - 정보화사회 구현, 사회 발전, 사회 구성원의 단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바람직한 정부 통치 제도, 독립적·다원적인 정보 매체
 - 문화·언어적 다양성 보존, 지역 콘텐츠의 개발·보급 확산, 보호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한 노력
- o 정보사회는 진리, 정의, 공동 연대, 관용, 인간 존엄성, 책임 공유, 투명성, 책임감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함
 - 정보사회에서 모든 참여자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고 ICTs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ICT를 사용하여 인간 존엄성, 인권, 기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일본

- o 일본은 WSIS가 UN과 ITU의 공동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면

서 일본인 ITU 사무총장인 Yoshio Utsumi의 역할을 강조함

- WSIS는 기술보다는 정보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정보화 비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기반시설 측면에서 WSIS 의제에 접근함
- 또한, 일본은 WSIS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첨단 정보통신 기술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의 아시아 허브(Asia hub) 계획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 일반적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IPv6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정보사회의 특성의 하나로 부각시키고, 이러한 고도 네트워크 기술의 사용을 강조하면서 WSIS의 논의를 통하여 일본의 기술을 홍보하고자 함
 - 금년 초 아시아-태평양 지역준비회의를 통하여 2010년까지 아시아를 세계 정보통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본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도서 지역,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공개함
 - 그러나 중국, 스위스 등 몇몇 국가는 특정 기술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이미 갖고 있는 라디오나 TV, 인쇄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저렴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강조함

중국

- 중국은 WSIS 논의 초반에 중국의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WSIS의 주제로 인력자원 및 능력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 문화적 다양성의 보전,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 네트워크 보호를 제안하였음
-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존중, 개인의 명예·권익 보호,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중 보건 확립의 맥락에서 정보사회는 개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미디어나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정

- 보·지식의 개발, 수용,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강조함
- WSIS 논의 초반에 중국이 WSIS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루는 것을 반대한 입장과는 달리, 최근 중국은 인권 존중과 기본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 특히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미디어나 기타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UN 인권선언 19조, 29조에 명시 — 등 기존의 국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단체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임

호주

- 호주는 대부분 정보사회 환경 관련 기술표준화 및 규범 형성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관련 규범 적용, 전자 보안(electronic security)의 표준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freeflow of informa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독려하는 적극적 역할을 WSIS가 수행하도록 희망하고 있음
- 더불어 호주는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상호운용성 제도 표준화를 위한 작업은 모든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임과 동시에 기술 고정 비용 감소, 기존 기술 통합을 통해 온라인 무역을 추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표준화 실행을 통해 비용 절감, 복잡한 전자 상거래 절차

간소화 등을 기대한다는 입장임

개발도상국

-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 노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 개도국은 기금(solidarity fund) 조성을 통한 개도국의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 그러나 미국 등 정보화 선진국들은 국가별 정보화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정보화 추진 방식을 지지하며, 별도 기금조성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선진국 기업이 개발한 O/S 및 응용 도구의 사용을 반대하고 UNDP와 같은 국제사회가 오픈 소스 기반의 S/W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자는 주장임
 - 선진국 기업이 개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이용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은 지적 재산권 문제를 O/S와 결부시켜 개발자의 이익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주장임(미국은 이 문제가 지적 재산권의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정보의 자유로운 표현에 관한 것을, 브라질과 쿠바는 중국처럼 국가 규범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 쿠바, 알제리, 이란 등은 표현의 자유는 자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

- 하여 수용되어야 하며, 특히 자국 문화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물이나 폭력 및 불건전 정보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견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민주정치 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즉, 미래에 구축될 세계 정보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권리, 개인 사생활권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이것을 준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개발도상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일 수 없는 현실임이 나타남
- 중국과 러시아 등은 보안(security)을 강조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네트워크 보안이지 정보 보안이 아님을 강조함
 -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은 WSIS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 간의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2) 지역별 입장

- WSIS 지역별 준비회의 결과를 통해 WSIS 논의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나타남
- 지역적 편차는 정보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편차와 유사하며,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지역적 요구가 반영된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음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지역준비회의	회의 내용
아프리카 지역 준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안점 - 정보사회 발전은 최빈국과 농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 ○ 목표 -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구축, 국가정보화 전략, 응용 서비스 개발, 지역 콘텐츠 구축, 전자정부, 정보화 영향평가 ○ WSIS 의제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촌과 오지가 우선순위, 정보격차 해소 • 아프리카만의 혁신적이고 친화적인 솔루션 제공 • 공공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의 공동 참여 유도 •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도화 • 선진국의 성공사례 연구, 아프리카 지역의 경험사례 공유 ○ 지역회의 결과물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 언어적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 실행 강조 • 지역의 어려움 인식, 지방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강조
범유럽 지역 준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정보화 사회 구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민주주의, 투명성, 책임성, 바람직한 거버넌스 추진 • 인간 중심적인 접근,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보공유 역할 ○ 정보화 사회 발전을 위한 e-전략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보장 • 적절한 가격의 보편적인 접근 증진 •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 증진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간 능력 배양 • 규제적·정책적 틀과 같은 환경 조성 • ICT의 활용에 정확성·보안성 확보 • 글로벌 이슈 환기, 경험·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적 협력의 장 마련 ○ e-전략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제도 정착, 전자사회 실현, 전자학습 및 전자교육 확대

<p>아시아-태평양 지역 준비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활용 촉진, 방대한 정보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 경제성장을 통한 GNP 증대, 인적자원 개발 면에서 ICT의 역할 강조 • 지역의 사회적 가치, 문화적 유산 보존과 다양화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성·신뢰성 역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8가지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구축 및 개발, ICT에 대한 적정가격의 보편적 접근 보장,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보존과 지역 콘텐츠 개발 • 인력자원 개발, 법적·제도적·정책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적 재산권과 공적 이익 사이의 확보 • ICT의 보안 보장과 파트너십 강화, 자원 동원 ○ 지역회의 결과물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지역을 고려한 전자보건 항목 추가, 강조 • 역내국의 독자적 정체성, 상이한 발전단계,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을 고려한, 각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 강조
<p>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준비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 책임, 목표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국가활동에 적극 참여 • NGO, 민간부문, 시민학회, 학계가 이니셔티브의 지속성과 과정에 충분히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 전자 스펙트럼 관리, 전자주파수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국가법 준수 의무화 • 지역 트래픽 허브 신설, 접속망의 광대역화 추진 등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향상 강조 ○ WSIS에 대한 카리브해 지역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측면에서의 ICT의 접속, 정보격차, ICT 수렴의 의의, 포괄 서비스 언급 • 대각선 측면에서의 장애제거, 이전의 가속화, 규제 프레임워크 재정, 인적자원 언급 • 수직적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과정, 발전을 위한 ICT,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범지역주의, 디지털화의 중요성 지적 ○ 지역회의 결과물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콘텐츠 및 글로벌 자원의 지역적 활용을 지적 재산권과의 지역적 활용과 연장선상에서 언급 • 지역 통합, 정보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역적·하위지역적 작업반 설치에 동의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서아시아 지역 준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정보사회 내에서 서아시아 지역의 위치 확인, WSIS에 대한 지역국의 의견 조율을 통한 역내 공감대 형성 • 역내 정보사회 관련 관계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한 플랫폼 마련 • ICT 기반 시설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 마련을 통한 ICT 역량 강화 ○ WSIS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접근과 ICT의 혜택 분배를 위한 정보화 사회의 기반 시설 발전 • 전자정부, 전자보건, 전자상거래, 전자비즈니스와 같은 ICT활용 • 정보화 사회 프로젝트 시작, 실행, 재정마련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아랍어 기반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논의 진행
비스켈 모스크바 부속지역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IS에 대한 비스켈.모스크바 지역의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집단, 인구집단 남녀 사이의 정보접근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 인식 • 현존의 발전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 등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반 시설 접근에 장애물 존재 확인 • ICT 우수인력 부족 지적 •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은 발전을 위한 도구이며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인식 • 사회 각계 집단의 참여가 필수이며, 특히 사회적 참여가 취약한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포괄적인 지역 협력 틀의 발전은 ICT 활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
Mauritius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IS에 대한 Mauritius 지역의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지역 내 정보화 사회 구현에 대한 문제점 인식 • 아프리카 지역의 정보화 사회 구현에 대한 준비 상황 점검 • 아프리카 ICT 분야의 근간 형성, 능력 배양 • 아프리카 지역 내 전자정부 실현 • 아프리카 지역 성장의 원동력은 ICT임을 주지

3) 국제기구의 입장

- 국제기구들은 WSIS 논의에 더욱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보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각 기구들의 역량을 이용하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국제기구들은 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주요한 WSIS 주제들로 제안하고 있는 경향임

APEC

- APEC은 198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경제 성장, 협력, 무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됨
 - APEC의 회원경제체는 21개로 구성되어 있고, 2억 5000명 이상의 인구와 세계 GDP의 절반과 세계 무역의 절반 가량을 대표함으로써 총괄적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위한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 APEC은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TEL)을 통해 APEC 회원경제체들 간의 정보통신 분야 무역·투자자유화, 개발협력 활동 전개 및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인프라(APII) 구축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정보화 사회(APIS) 구현을 목적으로 함
 - APEC은 WSIS 논의에 APEC 내 성공사례 및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도전과 기회에 초점을 둠
- APEC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정책, 통일된 정부, 법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 e-보안과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활성화 및 전자정부 구현 장려, 광대역 접속망,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사회의 역할, 각 지역 고유의 콘텐츠 및 애

플리케이션, 정보교환, 인적자원 개발, 차세대 기술, 표준화 장려, 정보사회 실현이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 지역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제안함

- APEC은 WSIS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간, 하위 지역 간 토론회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함

ITU

- o ITU는 정보화 사회 구현에 대해 범세계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함. 통신발달에 대한 기술과 경험,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해결하는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TU는 WSIS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 핵심 분야 전반에서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ITU는 WSIS의 개최를 주도하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면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 o ITU는 PP-02에서 WSIS가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잠재력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 정보와 지식에 대한 권리 보호
 - * 적정 가격의 보편적 접근의 증진
 - * 국제적 협력 강화
 - * 실현 가능한 환경 조성
 - * 인간 능력 배양
 - *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
 -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 * 개발도상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의 확대
 - * 글로벌한 도전들에 대한 인식 환기

- 원칙 선언 및 행동계획에 관련된 3개의 카테고리에 세부적인 이슈 제안
 - * 모든 이에 대한 ICT 접근 제공
 - *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ICT
 - * ICT 사용에서의 안정성과 보안

UNESCO

- UNESCO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과 정보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육성하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려는 184개 회원국이 위임한 기구로, ITU 외 가장 적극적으로 WSIS에 참여하고 있는 UN 산하 국제기구임
- UNESCO는 WSIS 활동의 구심점인 동시에 WSIS 준비과정에서 시민단체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 공헌한 바가 큼
 - UNESCO는 정보접속, 훈련,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컨텐츠’ 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아래의 UNESCO 결정안이 WSIS 논의에 반영되기를 희망함
 - * 문화적 다양성,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허용, 의사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보지식 사회구현을 위한 UNESCO의 전략
 - * UNESCO는 각 멤버에게 제네바와 튀니지에서 개최하는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
 - * WSIS 진행과정에서 NGO와 시민사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장함

UNCTAD

- UNCTAD는 기업의 ICT 채택을 정보화 사회, 세계화 경제, 국제 시장의 핵심 요소로 간주함
 - ICT 사용은 물품·서비스 교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의 거래는 이미 상당 부분을 ICT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

- 존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ICT는 거래 비용을 절감해서 각 기업이 세계 시장에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함
- ICT를 통해 기업 경쟁력,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기업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함
 - 그러나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ICT가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때의 혜택은 제외될 때의 비용만큼이나 높은 실정이라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함
- UNCTAD는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비즈니스의 확산과 촉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경제가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 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e-비즈니스 실행안 채택이 개발도상국에 신속한 ICT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장 강력한 거래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개발도상국의 ICT 채택은 초기 단계에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정보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마련을 위한 e-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음
 -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WSIS로부터 야기되는 변화를 위한 agenda 실행하고 수립할 때는 정책 입안자들이 ICT의 상업적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이슈에 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ILO

- ILO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정의 확립과 이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단체교섭권의 승인, 노사의 협조, 사회보장 및 사회입법의 실현,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등을 조장, 촉진하는 UN의 전문기구로, WSIS 논의에서는 ICT와 관련된 노조의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ILO는 향후 정책은 업무상에서의 ICT의 긍정적인 면을 배가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반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ICT는 업무 방식, 시간,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빈곤 타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고용 촉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e-employment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은 문맹 퇴치, 정보화 사회의 참여 방안으로 필수적이고 각기 다른 성 역할 부여와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ICT에 기초한 매개를 통해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함

4) 시민사회의 입장

- WSIS 의제는 정보 및 IT의 민영화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경제 문제를 다루며, 이 사안들은 NGO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WSIS 제2차 준비회의에서 NGO는 더 능력 있고 결집력 있는 모습을 보여 줌
 - 또한 조직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NGO 기관 사이에서도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
 - 시민사회단체는 WSIS 논의에 다양한 시각과 각기 다른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은 사회정의 실현 및 다양성 보존에 목표를 둠
- 평등한 정보화 사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ICT는 지역정부 단계에서 국제 거버넌스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참여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시장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상업적인 목표가 조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공공 서비스 개발,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원칙, 적정 가격책정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WSIS 논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자원

효율성 향상, 쓰레기 폐기물 감소, 하드웨어의 useful life 향상, 재활용 여건 마련, 안전한 ICT 하드웨어 폐기처분 과정 마련 및 유해한 ICT 부품 대체안 마련의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발전, 민주주의, 참여의 맥락에서 인권 기준 강화안이 언급되어야 하며,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지적 창의성,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존중의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지식 성장을 추구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 문맹 퇴치, 교육, 연구 활동,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젠더(Gender), 정보보안 이슈에 관심을 갖고, 및 기타 지역·국가의 진행 과정을 주목함. 또한 NGO와 시민사회의 민간기업들이 WSIS 논의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포함
 - 시장 경제 모델이 정보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모델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평등주의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사회정의, 인간계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어야 함
 - 정보통신 기술(ICT)은 인간계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 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함
-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함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함

-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사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민간부문의 입장

- o WSIS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종 결정권자이며, 민간 기업 역시 공식적·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WSIS 논의에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o 대부분의 정보 선진국 정부는 WSIS의 목표 실행을 위해 다각도에서 민간 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민간기업은 정부 규제와 정부 정책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CCBI의 입장

- o CCBI(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Business Interlocutors)는 WSIS 내에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함
- o CCBI는 다음의 세 가지 우선과제 해결을 촉구함
 - 기업의 정보 인프라 개발·확산을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 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상호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인프라 구축
 - 견실하고 공정한 교육·건강 보건제도 수립
 - e-learning, e-health, 전자정부와 같은 ICT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혜택 인식

SIIA의 입장

- 대략 600개의 멤버(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SIIA(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소프트웨어 코드와 정보 콘텐츠 산업을 대변하는 무역 단체임
- SIIA는 WSIS 논의가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함
 -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 초창기부터 민간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인프라를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 대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됨
 - 민간기업의 투자와 그 투자를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의 중심적 역할은 Declaration or Action Plan을 포함한 WSIS 결과와 주제 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임
- SIIA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임
 - SIIA는 지적 재산권자를 보호하고 이 권리의 실행을 참작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법 제정을 지지함
 - 우선 '적절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제정된 법안이 첫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상품, 서비스의 개발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둘째, 포괄적인 법안으로 권리 보호와 제반 문제 해결책이 정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셋째, 국제 규정과 상치되지 않아야 하고, 넷째,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민사·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4. 평가 및 전망

- 현재까지의 WSIS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반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임
- 2003년 7월에 개최된 Intersessional Meeting시부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선언문과 실천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3차 PrepCom에서는 많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2단계 정상회의의 성과는 1단계 정상회의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1단계 정상회의를 위한 주요 당사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UN 밀레니엄 선언(UN Millenium Declaration)에서 추구하고 있는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중 빈곤 타파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SIS의 논의 및 합의 등이 UN 및 그 산하 국제기구와 기타 국제적인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됨
- 냉전체계의 종식 이후,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세계 문제들을 범세계적인 규모의 정상급 국제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WSIS를 전망할 수 있을 것임

- 세계 아동대회(The World Summit for Children)-1990, 뉴욕
- 유엔환경 개발회의(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92, 리우 데 자네이로(Earth Summit)
-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1993, 비엔나
- 사회개발정상회의(The Summit on Social Development)-1995, 코펜하겐
- 세계여성대회(The World Conference on Women)-1996, 베이징
- 식량정상회의(The World Food Summit)-1996, 로마
- Millenium Summit-2000, UN
-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2, 요하네스버그

- 정상회의는 참여자들의 상이한 이해 등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 힘들거나, 이를 포함한 선언과 실천계획이 채택되더라도 개별 국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취약성이 있음
- 정상회의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WSIS는 단계별·지역별 준비절차와 2단계 정상회의라는 구조를 취하여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정상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좌우될 것을 예상됨
- WSIS의 핵심의제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는 ITU를 포함한 UN 및 그 산하기구들, G8, 기타 지역 및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으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함
 - WSIS는 이를 위한 기존의 노력 및 합의 등을 존중하면서, 정보사회에 부합되는 원칙을 세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의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됨

- WSIS의 선언문 및 실천계획과 관련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WSIS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 개별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할당되기 어려움
 - 개별 이슈들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이슈도 다양한 측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WSIS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맥락에서는 우선순위의 설정 등을 통해 효율화를 할 수 있을 것임

- WSIS에서는 국가 및 국제기구 외에 시민사회 또는 NGO가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제반 국제논의에서 시민사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UN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국가가 중요 당사자인 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논의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아직 제한적임
 -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인 생활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제반환경 변화라는 상황에서 개인 및 소외된 집단들의 이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가 중심의 시스템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상회의시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앞에서 서술한 중요 당사자들의 입장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수준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입장 차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입장 차이 등이 존재함.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도 큰 간극이 있으며, UN 및 UN 산하의 국제기구 간에서 각자의 고유영역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정보사회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
 - WSIS의 최선의 성과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차선의 절충이 아닌 합의를 위한 조정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IT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입지 및 IT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
 - WSIS는 정보화를 주제로 하여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이며,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WSIS의 주요 논의 주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WSIS에 강조하고 반영한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 인간능력 개발,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의 다양성, 국가 고유의 콘텐츠와 미디어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하여 향후 제안을 반영할 실천계획 사업도 더욱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도해 온 IT 인프라 협력사업, 정보기술 교육 및 협력사업, HRD 사업, 정보기반 구축지원 사업 및 전자정부 지원사업 등을 확장 발전시키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